

기혼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수혜의 영향 요인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financial supports and benefits between an adult married child and the parents by gender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성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a married adult on child-to-parent and on parent-to-child financial supports. The data, derived from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was obtained from the Survey Research Center at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samples included 367 married adult children who had more than one living par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showed that monthly household income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ncial supports that adult children provided to their parents or that the parents provided to their child. The expectation of financial supports from their parents in the future was a important factor that affected the level of female and male children's financial supports that they received from their parents. The level of instrumental supports from their parents and their parents-in-law did influence the level of financial transfers between them. These results showed that financial transfers between married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differed based on the children's attitude towards the supporting parents, and whether or not the children or parents had alternativ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for financial supports.

Moreover, the variation in financial supports and benefits showed complex differences based on the gender of the children, and based on whether the financial support was coming from the respondent's parents or their partner's parents.

* 주저자: 홍성희(hsh@kmu.ac.kr)

Key Words: 경제적 지원(financial supports), 경제적 수혜(financial benefits),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expectation financial supports from parents in the future), 도구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s)

I. 서론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에서 성인자녀가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던 시대에는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 신체적으로 부양하는 일이 당연한 자녀의 의무이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다. 핵가족화로 세대가 분리되면서 성인자녀와 부모의 부양 및 도움은 자원 이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녀와 부모가 이전할 수 있는 자원에는 시간과 돈, 정서적·심리적지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자원의 보유 및 흐름은 자녀와 부모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노년기에는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경제적 자원이 감소되는 노년기에도 자녀로부터 일방적 지원을 받기보다 다양한 자원의 제공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녀 부모 간 지원은 다면적이며 다방향성을 띠고(Roberto & Jarrott, 2008) 호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녀와 부모 간 지원의 호혜성은 특정한 시기에 부모 및 자녀의 요구와 자원의 수준에 따라서 같은 유형의 자원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선강, 2012). 노년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점차 감소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부모로부터 신체적 지원을 제공받는 것은 다른 유형의 자원 간에 이루어지는 호혜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은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호혜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과거에 노부모로부터 받은 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과거 부모의 지원에 대한 보상 역시 경제적 자원 이외에 돌봄 등 다른 유형의 자원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Koh & MacDonald, 2006).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녀와 부모세대의 지원의 호혜성이 다수 확인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녀의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에 이러한 호혜성이 작용하는지에 주목하였다. 즉,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수혜는 부모세대와 호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다른 유형의 지원과 교환되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동기요소로서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수혜 받는 동기가 교환이론에서 주장하는 호혜성에 근거한 것인지 이타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심을 두는 한편 호혜성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의 보유상태는 연령이나 생활주기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부모의 은퇴와 고령화, 자녀의 취업과 결혼 등의 생애사건과 전환기 경험에 따라 자녀와 부모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유형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거나 받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상 또는 교환으로 동일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면 다른 유형의 지원, 즉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수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구적 지원을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는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편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형성되어 온 지원태도가 동기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원태도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가족가치관의 공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기대, 부모자녀관계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경제적 지원행동을 결정하고 지속하는 동기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과 부양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 결과 남성이 부모에게 사적이전을 제공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김지경과 송현주(2008)도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의 81%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 것에 비해 딸의 42%가 이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선강(2005)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여성의 경우 지원유형 중에서도 도구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는데(Swartz, 2009; Kim et al., 2015) 비해 남성은 경제적 지원의 수준이 높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Lin and Yi, 201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이전 역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배희선(2008)은 아들만 있는 가계에서 아들들이 가계를 계승하고 부모의 노후부양을 책임질 것이라는 보수적 성향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조기에 자녀에게 경제적 통제권을 이양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가치와 부모세대의 보수적 성향을 근거로 한다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아들 또는 딸에게 기대하는 부양 역할과 그로부터 형성된 자녀의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자녀에게는 부모 부양의무감이나 가계 계승보다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미(허경옥·유수현, 2014)로 변화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의 혼인연령 증가, 이혼이나 실업, 맞벌이 부부의 증가, 경제적 독립 및 가구 독립 지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성인자녀가 여전히 노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Grundy & Henretta, 2006)는 견해는 자녀의 부모부양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상황 및 의식의 변화로 인해 성별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수혜에 아들 또는 딸로서의 부양의식과 부담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비교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본 연구는 자녀의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행동이 부모세대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또한 경제적 지원이 도구적 지원과 대체적으로 교환되는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때 부모 부양과 관련된 성역할의식의 변화, 아들과 딸로서의 부양행동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라, 또한 지원 대상이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인가에 따라 세분화하여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는 자녀와 부모세대 간 자원이전과 특히 경제적 지원의 호혜적 구조,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행동과 역할 부담,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또는 도구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자녀와 부모세대 간에 주고받는 경제적 지원과 대체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가사노동과 돌봄 등 도구적 지원의 기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와 부모세대의 경제적 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원의 교환과 지원을 통한 자원 활용의 최적화 및 다양한 방식의 자원 배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녀의 부모 지원에 대한 이론적 관점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가족 내 자원이전을 경제적 자원에 한정된 개념으로 접근한다. 경제적 자원의 이전 또는 교환은 제공 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이론으로 교환이론과 이타주의이론은 자원이전의 동기를 대조적으로 설명한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자원을 제공하는 행동

은 호혜성에 기초한다. 즉,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미래에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자녀와 부모의 자원이전은 부모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과 자녀의 이기적 동기화에 의한 것으로, 부모가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자녀의 관심이나 도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이며(Bernheim, Shleifer & Summers, 1985), 성인자녀는 부모로부터의 재분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부모의 유산이나 자산증여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선장, 2012).

이타주의론은 교환이론과 대비적으로 자녀와 부모 간 지원의 동기를 주장한다. Becker(1991)에 의해 소개된 이타주의론에 의하면 이타적 가장의 복지(well-being) 수준은 가족원들의 복지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이를 자녀의 부모 지원에 적용하면 성인자녀의 효용함수에 노부모의 효용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해야만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감소할 때, 자녀는 자원이전을 통해 부모의 복지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복지감을 증진시킬 것이다(고선장, 2008).

경제학에서 교환이론이 경제적 자원 이전 동기의 호혜성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사회학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호혜성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간 지원을 설명한다. 이 이론을 경제적 관점에서의 교환이론과 구분하여 사회적 교환이론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교환이론은 인간관계에서 호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환활동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를 가족관계에 적용하면, 부모-자녀 간 지원의 동기에 상호호혜성이 내재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오랫동안 받아온 정서적 지원이나 애정, 감정, 경제적 지원 등의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한 보상이며, 부모는 미래에 자녀에게 받을 보상을 기대하고 자녀를 양

육한다는 것이다(김혜경, 2004; Silverstein et al., 2002). 이러한 관점을 근거로 사회학, 노년학, 노인복지학 등의 분야에서는 부모-자녀 간 연대와 지원의 동기를 설명하는 상호호혜성에 관심을 두어왔다.

사회적 교환이론 이외에 자녀의 부모 지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효의식과 같은 규범(Lin and Yi, 2013)이나 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이 자녀에게 부모 지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Silverstein, Conroy & Gans, 2012)는 주장들이 있다. 이를 발전시킨 것으로 Bengtson & Roberts(1991)은 뒤르캄의 사회연대의 개념으로부터 소집단인 가족의 구성과 특유의 유대관계, 응집력 등에 주목해 세대 간 연대론(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가족 내 세대연대를 여섯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자녀-부모 간 자원이전과 관련된 영역은 기능적 연대(functional solidarity)로 세대 간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도움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상호지원과 자원의 교환을 의미한다(Bengtson & Roberts, 1991). 이 관점에서는 부모가 노년기에 자녀로부터 일방적 지원을 받기 보다는 여전히 자원의 제공자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자녀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지원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대상으로 다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Roberto & Jarrott, 2008)고 보는 관점으로, 이는 사회적 교환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상호호혜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자원관리 분야에서 자원 이전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자원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대학교육, 결혼, 주택 구매, 자녀의 출산과 양육비 등과 부모의 사후 상속에 이르기까지 장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허경옥·유수현, 2014). 또한 자녀의 결혼 이후 중노년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급속한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후불안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년기 부모의 노부모 및 자녀세대 부양과 관련하여

세대 간 자원이전의 효과를 노후생활준비, 생활만족, 행복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김순미와 고선강(2012)은 가계소득과 자산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중년층이 하지 않은 중년층에 비해 노후생활준비수준을 더 높게 지각했다고 보고하였다. 고선강(2014)은 가계소득계층 하위 집단에 속한 중년층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이 이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홍성희와 궤인숙(2014)은 자녀가 노부모에게 수단적 지원 또는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하나, 부모의 노후생활과 삶의 질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은 정서적 지원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중년층 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성희(2015)의 연구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부모의 행복이 자녀에게 지원하는 부모나 서로 지원하지 않는 부모에 비해 낮은 반면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부모의 행복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에 대한 지원행동이 향후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 생활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수단적 지원에 비해 정서적 지원이 더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는 자녀와 부모 간 지원의 대상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도구적, 정서적 지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가족자원관리 분야에서 다루어 온 자원이전의 대상과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확대시킨 고선강(2005), Koh & MacDonald(2006), 한지수와 홍공숙(2007), 고선강(2008)의 연구는 공간자원, 시간자원, 경제적 자원 등을 같이 고려하면서 이전되는 자원의 유형과 대체성을 분석했다. 고선강(2005)은 미국 위스콘신 종단연구(Wisconsin longitudinal Study)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부모의 금융자산 이전이 현재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시간이나 돌봄을

제공하는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 부모의 자원이전이 다른 유형의 자원 간에도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유형의 자원을 제공할 것인가는 자원제공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자의 가용자원의 정도, 수혜자의 요구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특히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시간자원 이전을 분석한 고선강(2008)의 연구는 시간자원이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돌보기를 통한 시간자원 이전에는 부모의 가사, 육아 제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과 유산상속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같은 종류의 자원 내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 방문을 통한 시간자원 제공에는 부모의 가사, 육아 제공과 같은 과거 부모의 신체적 지원이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 상속, 즉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적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 방문에는 부모의 자산수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부모방문을 통한 시간자원 이전에는 경제적 자원, 즉 다른 유형의 자원이 호혜적으로 교환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지수와 홍공숙(2007)은 기혼여성과 노부모 간의 시간자원이전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시간자원의 이전을 경제적 자원과 같이 연구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부모로부터 이전되는 시간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효용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노부모 또한 자녀에게 시간자원을 이전시켜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복지감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할 때 노부모의 시간자원이 결국 자녀의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이타주의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에서 각 학문영역에서 자원이전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경제적 자원이전의 동기와 호혜성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자녀와 부모 간 자원이전을 다른 자원과의 관련시키거나 자원이전의 결과를 가족자원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의 관점으로 확장시키는 연구들로 진전되고 있다.

2. 자녀 부모 간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자녀 부모 간 지원에 대한 연구는 지원실태와 유형을 시작으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지원대상인 자원은 주로 경제적 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자녀와 부모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이전 실태를 다룬 김지경과 송현주(2008)는 결혼한 자녀와 부모의 26.6%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받기도 하는 상호교류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이윤정과 고선강(2011)의 연구에서는 중년의 어머니와 기혼자녀와의 경제적 상호교류가 미혼자녀와의 교류에 비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 지원이 상호적으로 지속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와 경제적 자원을 주고받지 않는 무교류형이 69.74%이며, 받기만 하는 수혜형이 23.82%, 제공만 하는 유형이 6.43%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의 연령에 따라 지원의 이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에서 자녀의 소득, 자산, 경제적 수준 등 경제적 요인들을 주요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김순미와 고선강(2012)의 연구결과 중년기 가정의 가계소득, 가계자산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선강(2014)은 중년기 가계의 소득수준을 상, 중, 하위 집단으로 세분화 하여 비교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특히 중위 집단과 상위 집단에서는 하위 집단의 2배가 넘는 비율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했다. 김지경과 송은경(2004)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녀가 부모와 상호 교류를 하거나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지연(2006)은 가구의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고선강(2008)은 자녀의 자산상태가 낮은 경우 중간인 경우와 비교하여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경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친다. Bernheim et al.(1985)의 전략적 유산상속모형에서는 부모가 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자녀들은 유산상속을 염두에 두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나 서비스를 더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실증분석 결과 부모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부모 방문과 연락 횟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유산상속모형과 관련된 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김순미와 고선강(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 성인자녀가 중년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더 빈번하게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성인자녀가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필요 또는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목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타적인 동기에 의한 지원으로 보았다. McGarry & Schoeni(1995), Boaz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부유할수록 경제적 자산을 이전받을 확률이 적으며,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확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변수로서 자원을 이전하는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모두 경제적 자원의 이전의 주요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경제적 자원 이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지원의 영향 요인으로서 자녀 및 부모의 개인 및 가계특성들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 지원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자원교류가 활발

하게 이루어진다는 결과(진재문, 1999; Cox, 1987)와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교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견해(McGarry & Schoeni, 1995)가 있다. 자녀의 연령을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조사한 김여진(2017)의 분석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취업, 경제적 수준과 만족도 등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대와 30대 자녀는 취업자일 때, 40대와 50대의 경우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정기적 경제지원을 더 많이 하였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비정기적 경제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와 자원보유상태도 변화될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능력 또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순미·박미려, 2008; 진재문, 1999; 김지연, 2006)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경향성이 높다(Henretta et al., 1997; 고선강, 2008)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성인자녀의 취업여부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동시에 자신의 가사노동 및 육아를 위한 시간자원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세대가 취업으로 시간자원이 부족할 경우 부모로부터 시간자원을 제공받고 자녀는 경제적 지원을 할 호혜적 자원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나 지원수준이 높았다(김지경·송은경, 2004; 손병돈, 1999; 이윤정·고선강, 2011, 김여진, 2017).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은 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지원 교류와 밀접한 관련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만족도는 객관적 지표로 파악할 수 없는 자신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평가와 충족감 등의 심리적 요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여진(2017)의 분석에서 자녀의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정기적 경제지원과 비정기적 경제지원의 수준이 높았던 결과는 가계경제만족도에 따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전통 및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자녀의 성별에 기반을 둔 부모부양 책임자의식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중 장남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 경제적 자원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손병돈(1999)의 연구나 중고령자 가구가 아들에게 받는 경제적 자원 수혜액이 다른 가족으로부터 받는 수혜액 보다 많았다는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 결과는 아들이 딸에 비해 부모부양책임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아들이 딸보다 재산상속과 부모부양에서 우위에 있다는 배희선·최현자(2002)의 연구결과 역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친의 취업유무는 부모의 현재 근로소득 유무, 경제적 상태와 관련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취업 또는 은퇴는 성인자녀의 경제적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손병돈, 1999; McGarry & Schoeni, 1997)는 결과나 은퇴한 중고령자 가구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가구일 가능성이 높았던 연구결과(김순미·박미려, 2008)는 부친의 취업유무에 따라 성인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와 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 및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는 실제 지원행동의 동기요소로 작용한다.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는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과 효의식,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가치관 등을 배경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결혼하면서 나이 들

고 경제적 능력이 감퇴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과 지원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들 수 있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자원 제공행동은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미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부모 자녀 간 경제적 지원의 동기는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고선강(2012)은 부모의 미래 재정적 지원이 자녀의 현재 부모에 대한 신체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중년기자녀가 노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자원이전은 동일한 자원 뿐 아니라 다른 자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도구적 지원에 대한 호혜적 교환일 수 있다. Koh & MacDonald (2006)는 자원이전의 개념에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함께 포함해야 하며, 이는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고선강, 2008에서 재인용). Cox와 Rank(1992)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시간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이라고 한 것이나, 부모가 손자녀 양육과 같은 도구적 지원을 하면 성인자녀도 그에 준하는 경제적 또는 도구적 보상을 한다는 결과(이재림, 2013)는 부모의 신체적 지원이 자녀의 경제적 지원과 상호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기혼 성인남녀가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을 이전하는 행동의 호혜성을 알아보고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요인, 지원에 대한 태도, 경제적 지원과 호혜적 또는 대체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지원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기혼 자녀가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수혜 받는 이전행동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이전 대상이 자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인가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부담과 역할 의식이 다를 것으로 보고 경제적 지원 주체의 성별과 대상자와의 관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성별과 대상자에 따른 차이점 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성인남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개인 및 가계특성, 부모 지원태도, 도구적 지원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기혼 성인남녀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수혜에 개인 및 가계특성, 부모 지원태도, 도구적 지원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기혼 성인남녀의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개인 및 가계특성, 부모 지원태도, 도구적 지원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기혼 성인남녀의 배우자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수혜에 개인 및 가계특성, 부모 지원태도, 도구적 지원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기혼남녀와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 이전빈도이다. 부모세대는 응답자 본인의 부모와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이전: 부모 경제적 지원 부모 경제적 수혜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 배우자부모 경제적 수혜	부모 및 배우자부모와 경제적 지원이전 빈도(4분항):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빈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빈도 배우자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빈도 배우자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빈도 1=전혀 드리지(받지) 않았다 3=가끔 드렸다(받았다) 5=매우 자주 드렸다(받았다)
독립변수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	
연령	본인의 만 연령
교육수준	본인의 교육연수(년)
본인 취업유무	1=취업 0=비취업
배우자 취업유무	1=취업 0=비취업
월평균가계소득(log)	가계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의 월평균액 log값
가계경제만족도	현재 가계경제에 대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만족도 불만족도 아님 5=매우 만족
부친(배우자부친) 취업유무	1=취업 0=비취업
부모 지원태도 변수	
부모 부양책임자의식	부모 부양책임이 가장 큰 가족원에 대한 인식 1=아들 0=기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 남성(여성)의 부모 경제적 지원 태도	‘성인남성(여성)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정도
남성(여성)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성인남성(여성)은 배우자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정도 1=전적 반대 4=찬성도 반대도 아님 7=전적 찬성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장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정도 1=거의 기대하지 않음 2=약간 기대 3=많은 기대
교환자원변수:	
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부모 및 배우자부모와 도구적 지원(집안일 또는 돌봄) 이전 빈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빈도
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수혜받는 빈도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배우자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빈도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배우자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수혜받는 빈도 1=전혀 드리지(받지) 않았다 3=가끔 드렸다(받았다) 5=매우 자주 드렸다(받았다)

배우자의 부모를 모두 포함하며,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본인의 부모와 처가부모, 여성인 경우 부모와 시부모를 각각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아들인 경우와 딸인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수혜 받는 빈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 이전의 상호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빈도와 받는 빈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부모와 경제적 지원 또는 수혜 빈도, 배우자부모와 경제적 지원 또는 수혜 빈도의 4가지로 구성되었다.

2) 독립변수

기혼남녀가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을 이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 특성, 가계특성변수, 그리고 부친(배우자부친)의 취업유무이다. 둘째, 부모 지원태도 변수로 조사대상자들의 부모 부양자 책임의식 및 실질적인 경제적 부양부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변수, 그리고 부모로부터 향후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의 세 변수를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이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교환될 수 있는 다른 지원유형, 즉 도구적 지원빈도를 선정하였다.

변수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으로 가계특성변수는 현재 및 미래의 가계경제상태를 반영하는 월평균 가계소득과 가계경제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부모의 소득, 자산과 같이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측정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이를 대신하는 변수로 부친 또는 배우자부친의 취업상태를 선정하였다. 이때 기혼남녀가 자신의 부모와 경제적 지원을 이전하는 경우 부친의 취업유무를, 배우자의 부모와 경제적 지원을 이전하는 경우는 배우자부친의 취업유무를 변수로 투입하였다.

부모에 대한 지원 태도는 ‘성인 기혼자녀로서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정도를 측정한 변수로서, 경제적 지원을 실행하는 행동에 앞서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와 배우자에게 하는 경우를 각각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아들 또는 딸로서 부모 부양과 관련된 책임의식과 역할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남성인 경우 ‘성인 남성으로서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지원에 대한 태도’를, 여성인 경우 ‘성인 여성으로서의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지

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값으로 적용하였다. 부모의 향후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는 현재 및 미래 예상되는 부모의 증여 및 상속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지만 자녀의 현재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경제적 지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변수로 보았다.

성인자녀와 부모세대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지원을 이전할 수 없을 때 다른 지원으로 대체 또는 보완하는 이전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속변수인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환자원으로 도구적 지원 제공과 수혜빈도를 선정하였다.

3.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사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매년 한국의 주요 정치, 경제 및 사회문제를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의 표본은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다단계 지역확률표집법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교육받은 면접조사원이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대면조사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조사대상자 1,052 명 중 기혼자이며 부모 및 배우자부모 중 한 분 또는 두 분이 생존한 30대에서 60대까지 367명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경제적 지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세 유형의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및 VIF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회귀모형에서 VIF 계수는 2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8.3%로 남성에 비해 많았다. 연령의 평균은 약 45세이며, 이들을 30대, 40대와 50, 60대로 구분했을 때 각각 63.5%, 36.5%로 30대와 4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취업 상태는 본인이 취업한 경우 74.9%,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 73.8%로 각각 취업자가 전체의 약 2/3를 차지한다(표 2).

가계관련변수 중 월평균가계소득은 약 547만원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높은 취업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3.26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한다.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주로 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보다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녀 또는 가족원 모두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가 78.9%로 훨씬 많았다. 이는 부모를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성인 자녀세대가 부모의 부양에 대해 장남 또는 아들 위주의 책임의식을 고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모에 대한 지원태도를 자녀의 성별과 지원대상에 따라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비해 본인부모에 대한 지원에 더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성의 경우도 본인부모에 대한 지원태도가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태도에 비해 약간 더 긍정적이다. 그러므로 기혼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재정지원을 배우자부모에 비해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자신의 부모로부터 장래에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정도는 3점 중 1.2점이었었다. 즉, 부모가 고령화되었을 때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과 호혜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도구적 지원빈도는 전반적으로 기혼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빈도가 부모로부터 받는 수혜빈도보다 높고,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제

공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367)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53	41.7
	여성	214	58.3
연령	30-40대	233	63.5
	50-60대	134	36.5
본인 취업유무	취업	275	74.9
	비취업	92	25.1
배우자 취업유무	취업	240	73.8
	비취업	85	26.2
부모부양책임자의식	아들	77	21.1
	기타	288	78.9
부친(배우자부친)취업유무	취업	76(63)	36.5(41.4)
	비취업	132(89)	63.5(58.6)
	평균	표준편차	
연령	45.98	9.089	
교육년수	14.16	2.808	
월평균가계소득(만원)	547.90	375.046	
가계경제만족도	3.26	1.075	
부모 지원태도 :			
남성의 본인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5.085	1.327	
남성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4.956	1.303	
여성의 본인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4.983	1.287	
여성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4.965	1.319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1.254	.501	
교환지원변수 :			
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2.758	1.087	
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2.129	1.219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2.516	1.024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2.087	1.082	

* 변수에 따라 응답자 수에 차이가 있음

2. 기혼남녀와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 이전 실태

기혼남녀가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을 상호적으로 이전하는 실태를 알아보았다(표 3). 이들은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수혜 받기보다는 제공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대상별로는 부모에 대한 제공과 수혜가 배우자부모에 대한 것에 비

해 더 높았다. 그러므로 본 조사대상자들은 자녀로서 부모세대에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편이며, 배우자부모보다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양을 더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3〉 기혼녀와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 이전 실태 (N=367)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지원 이전실태:		
부모 경제적 지원	3.087	1.109
부모 경제적 수혜	2.008	1.033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	2.929	1.076
배우자부모 경제적 수혜	1.968	0.953
	빈도	백분율
경제적 지원 이전유형:		
상호지원형	83	22.8
제공형	184	50.5
수혜형	33	9.0
상호 무지원형	64	17.5

한편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수혜 빈도를 중심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을 하는 동시에 수혜 받는 유형을 ‘상호지원형’, 부모세대에 지원하면서 수혜 받지 않는 유형을 ‘제공형’, 지원하지 않으면서 수혜 받는 유형을 ‘수혜형’, 지원과 수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을 ‘상호 무지원형’으로 구분한 결과 제공형이 가장 많은 50.5%에 달하며, 수혜형이 가장 적은 9.0%였다. 상호 지원형은 22.8%, 상호 무지원유형도 17.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년층과 초기 노년층에 해당하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약 73%는 일방적 또는 상호적으로 부모세대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해 부모 부양과 지원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기혼남성과 여성의 부모 및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 및 수혜의 영향요인

1) 기혼남녀의 부모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남성과 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기혼남성의 부모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첫째,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가계특성변수, 둘째, 부모 부양책임자의식,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로 구성된 태도 변수, 셋째,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과 교환될 수 있는 자원인 도구적 지원의 제공 및 혜택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남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가 경제적 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평소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실제 경제적 지원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향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적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미래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현재 경제적 상태 또한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양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혼남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지원태도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가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기혼의 딸이 자신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질수록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이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경제적 지원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도구적 지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혼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부모에게 제

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주로 부모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소의 태도와 자녀로서의 역할의식에 의해 결정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표 4〉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영향 요인

	남성(N=153)		여성(N=214)	
	B	β	B	β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				
연령(50-60대)	-.510	-.1157	-.021	-.008
교육수준	.022	.051	-.002	-.004
본인 취업유무(취업)	-.633	-.108	.249	.111
배우자 취업유무(취업)	.024	.281	.107	.024
월평균 가계소득(log)	.321	.273	.066	.034
가계경제만족도	.121	.121	-.068	-.065
부친 취업유무(취업)	.106	.269	-.335	-.145
부모 지원태도변수				
부모 부양책입자의식	-.104	-.040	-.210	-.068
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330	.315**	.341	.421***
부모 경제적 지원 기대	-.517	-.243*	-.041	-.041
교환자원변수				
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249	.209	.380	.380***
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187	.200	.048	.056
상수		-1.286		.067
R ² (Adj-R ²)		.401 (.281)		.383 (.305)
F 값		3.343**		4.905***

*p < .05 **p < .01 ***p < .001

2) 기혼남녀의 부모 경제적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남성과 여성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기혼남성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 수혜를 종속변수로,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가계특성 변수, 부모 지원태도변수, 교환자원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했을 때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 혜택,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 가계경제만족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본인의 취업유무의 순으로 영향

을 미쳤다. 취업한 기혼남성이 비취업자에 비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를 더 받는 경향이 있었고, 가계경제만족도가 낮을수록 경제적 수혜를 더 받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취업 기혼남성의 근로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할만한 경제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고선강(2012)의 연구에서 자녀의 취업여부가 소득과 관련된 변수로서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제시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녀의 소득 충분성 또는 적정성과 같은 주관적 요인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McGarry & Schoeni(1995)가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를 받는 빈도가 높았다. 미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노후 경제적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경제적 상태의 양호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수혜 빈도 또한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기혼남성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와 교환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경제적 수혜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와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파악되었다. 동시에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이 경제적 수혜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자녀와 부모의 지원행동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돌봄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범위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기혼남성 및 기혼여성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의 영향 요인

	기혼남성 (N=153)		기혼여성 (N=214)	
	B	β	B	β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				
연령(50-60대)	.137	.043	-.298	-.120
교육수준	.042	.067	-.020	-.049
취업유무(취업)	1.040	.183*	-.177	-.085
배우자 취업유무(취업)	.335	.148	.080	.020
월평균 가계소득(log)	-.0102	-.053	.073	.040
가계경제만족도	-.331	-.309**	.006	.070
부친 취업유무(취업)	-.030	-.013	.051	.107
부모 지원태도변수				
부모 부양책임자의식	-.119	-.047	.101	.035
부모 경제적 지원 태도	.103	.101	.033	.044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513	.248**	.355	.187*
교환자원변수				
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398	.334**	.058	.062
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102	-.348**	.392	.496***
상수		-.604		.321
R ² (Adj-R ²)		.572 (.486)		.432 (.360)
F 값		6.680***		6.023***

*p < .05 **p < .01 ***p < .001

기혼여성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와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 혜택이었다. 기혼여성의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수혜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모 지원태도 변수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기대감이 클수록, 그리고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빈도가 높을수록 현재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 수혜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과 여성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도구적 지원 수혜로 나타난 공통점을 보였다. 즉, 기혼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의 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적 지원 또한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남

성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호혜적으로 자신 또한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여성은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무관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차이점을 보였다.

기혼남성과 여성은 모두 부모의 미래 경제적 지원에 대해 기대할수록 경제적 지원을 수혜 받는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교환이론에서 주장하는 성인자녀와 부모 간의 자원이전과는 다른 경향이다. 교환이론을 중년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에 적용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녀는 유산이나 자산 증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선강, 2012). 이와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부모의 양호한 경제적 상황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자녀가 현재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수혜 받는 빈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3) 기혼남녀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남성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의 영향요인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가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즉, 평소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찬성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실제로 지원하는 빈도가 높았다.

기혼여성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에 대한 중회귀분석에서는 개인적 변수 중 교육수준이 유일한 정적 영향을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원빈도 또한 높았다. 또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태도가 경제적 지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환자원변수인 배우자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 빈도는 경제적 지원 빈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였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배우

자부모 지원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도구적 지원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혼남성과 여성이 배우자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빈도에는 평소 경제적 지원에 찬성하는 태도가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공통점을 보였다.

〈표 6〉 기혼남성 및 여성의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영향 요인

	기혼남성 (N=153)		기혼여성 (N=214)	
	B	β	B	β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				
연령(50-60대)	-.169	-.060	.544	.114
교육수준	.002	.004	.127	.248*
취업유무(취업)	.1,038	.112	.212	.101
배우자 취업유무(취업)	-.221	-.101	.426	.078
월평균 가계소득(log)	.144	.071	.290	.148
가계경제만족도	.168	.166	.045	.047
배우자부친 취업유무(취업)	-.269	-.122	-.038	-.018
부모 지원태도변수				
부모 부양책임자의식	.298	.121	.430	.130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328	.360**	.316	.337**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113	-.053	-.162	-.086
교환자원변수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252	.203	.442	.423***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147	.162	-.128	-.126
상수	-2,199		-3,818	
R ² (Adj-R ²)	.399 (.275)		.445(.345)	
F 값	3,207**		4,418***	

*p < .05 **p < .01 ***p < .001

4) 기혼남녀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남녀가 배우자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표 7〉과 같다. 기혼남성이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 제공빈도와 수혜빈도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종속변수인 경제적 지원과 교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도구적 지원변수 중 기혼남성이 배우자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배우자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수혜 빈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지원의 수혜빈도도 증가하였다. 즉, 기혼남성은 자신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수혜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고 또 지원 받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혼남성과 배우자 부모 간 자원이전에는 호혜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이 배우자부모에게 받는 경제적 수혜의 영향요인은 배우자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 혜택 빈도가 유일하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빈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빈도 또한 높았다. 기혼여성의 경우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를 받을 때와 같이 도구적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 7〉 기혼남성 및 여성의 배우자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의 영향 요인

	기혼남성 (N=153)		기혼여성 (N=214)	
	B	β	B	β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				
연령(50-60대)	-.095	-.042	-.129	-.026
교육수준	.014	.040	-.056	-.108
취업유무(취업)	.893	.119	.370	.171
배우자 취업유무(취업)	.128	.072	1,065	.190
월평균 가계소득(log)	-.297	-.181	-.422	-.210
가계경제만족도	-.041	-.050	.108	.111
배우자부친 취업유무(취업)	-.212	-.119	.351	.161
부모 지원태도변수				
부모 부양책임자의식	.072	.036	-.676	-.200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002	.002	-.107	-.112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123	-.071	.173	.090
교환자원변수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484	.482***	.028	.026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183	.249*	.444	.428***
상수	1,446		3,327	
R ² (Adj-R ²)	.443 (.328)		.380 (.268)	
F 값	3,848***		3,376**	

*p < .05 **p < .01 ***p < .001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는 기혼자녀세대의 특성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또는 대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구적 지원 등 다양한 변수들이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 및 수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기혼자녀가 아들 또는 딸인가에 따라, 그리고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는 대상이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인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징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 부모 간 경제적 지원행동의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연구되어온 자녀의 소득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 수준 또는 자산 수준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았던 선행연구들(김지경·송은경, 2004; 김지연, 2006; 고선강, 2008)과 차이가 있다. 기혼남성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에 본인의 취업상태와 가계경제만족도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 취업유무나 월평균소득, 가계경제만족도 등 가계특성이 경제적 지원 및 수혜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성인자녀의 경제적 수준은 부모 경제적 지원에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요인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수혜에도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경제적 지원태도는 부모 및 배우자부모에게 지원을 하는 행동에, 부모의 향후 지원 기대수준은 부모의 지원을 받는 행동에 중요한 동기요인이었다. 따라서 자녀의 경제적 상황보다 부모 지원과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과 수용적 태도가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을 교환하는데 동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소득, 자산과 같은 변수들이 측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모의 현재 및 미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투입한 결과 기혼남성과 여성이 부모의 경

제적 수혜를 받는 빈도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성인 자녀들은 부모가 미래에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될 때 수혜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자녀와 경제적 자원교류를 분석한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에서 중고령자의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소유자일 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컸던 결과와 연결시켜 볼 때 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자녀가 수혜 받는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기혼남녀의 경제적 수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남성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을수록 현재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였다. 부모의 향후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현재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혼남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에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지원태도변수의 중요성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이타주의론을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에 적용한 고선강(2008)에 의하면 성인자녀의 효용함수에 노부모의 효용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는 자원이전을 통해 부모의 복지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복지감을 증진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기혼남성이 향후 경제적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낮은 부모, 즉 현재의 경제상태가 열악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함으로써 부모 뿐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오랜 부모 자녀간의 관계에서 받아들인 정서적 지원이나, 애정,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답의 상호호혜규범으로 설명하는 사회적 교환 관점(Hollstein & Bria, 1998을 정진경·김고은, 2012에서 재인용)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즉,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미래의 보상이나 기대에 근거하기보다 고통 화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없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부모에게 성인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보편적으로 형성된 호혜적 규범으로 볼 수 있다.

자녀와 부모의 자원이전은 같은 형태의 자원으로 상호 이전되는 경우와 특정자원의 충분성 정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교환되는 경우가 있다 (고선강, 2008). Koh와 MacDonald(2006)는 자녀와 부모 간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부모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기혼자녀와 부모세대가 소유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기혼자녀가 부모세대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때 이와 교환될 수 있는 다른 자원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 경제적 지원과 교환 또는 대체될 수 있는 가사노동과 돌봄 등 도구적 지원 변수는 특히 기혼남성이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기혼남성이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행동은 자신이 부모세대에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과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자녀와 부모세대간 지원이 다양한 자원과 호혜적으로 교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세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다른 종류의 자원으로 성립된다는 선행연구 (Henrreta et al., 1997; Koh & MacDonald, 2006; 고선강, 2008)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호혜적 교환은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환이론에서 의미하는 장기적 관점의 자원이전, 즉 부모로부터의 과거 자원이전 또는 미래 예상되는 자원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교환되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지원과 수혜를 자녀의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라 부모 지원에 부분적으로 공통점이 있으며 차이점 또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기혼남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태도 및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가, 여성의 경우 역시 경제적 지원 태도가 영향을 미치며 그 이외에 도구적 지원 제공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기혼남성과 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주로 지원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녀 모두 태도 변수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교환자원인 도구적 지원의 수혜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에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도구적 수혜를 받을 때 동시에 경제적 수혜를 받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남성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는 여성에 비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본인의 취업유무와 가계경제만족도 등 가계특성의 영향이 유의했다. 본인의 취업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요인이나 가계경제상태의 부적 영향력과 관련지어 볼 때 연령대가 낮거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 자녀가 근로소득으로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오히려 부모의 지원과 보조가 필요한 상태로 유추된다. 또한 남성은 여성과 달리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수혜를 받는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기혼남성과 부모의 지원은 다른 유형의 지원을 호혜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한편 기혼남성과 여성의 지원태도는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유사성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도구적 지원 제공 또한 영향을 미쳐, 기혼여성은 자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 동시에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교육수준이 정적 영향을 보임으로써 여성의 여러 특성과 상황이 배우자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배우자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에는 기혼남성과 여성의 도구적 지원 수혜빈도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부모로부터 도구적 수혜를 받을수록 경제적 수혜도 많이 받는데, 이는 자신의 부모에게 받는 경제적 수혜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남성의 경우 도구적 지원 제공빈도가 유의한 변수였다. 그러므로 남성은 배우자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수혜를 받는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은 도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받는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여성이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수혜 받는 양상은 상대적으로 젊고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육아, 경제적 보조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기혼남성과 여성이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 또는 수혜를 받는 과정에서 남녀의 지원태도와 도구적 지원이 영향요인으로 부각된 유사성을 보인 한편 개인 및 가계 특성의 유의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기혼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지원이전의 대상인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에 따른 차이와 복합되어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성별은 성에 기반을 둔 자녀의 역할 기대와 관련 있으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수혜 받는 자녀가 아들 또는 딸인가에 따라 부모 지원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기대에 따라 자녀가 부모세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와 수혜 받는 빈도와 영향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자신의 부모에게 아들 또는 딸로서, 그리고 배우자 부모에게 사위 또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따라 경제적 부양태도 또는 실질적인 부양부담과 행동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자녀 부모 간 경제적 지원과 수혜에서 경제적 자원 이외에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태도가 경제적 지원행동의 동기요인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모세대와 교환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녀의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수혜는 자녀 뿐 아니라 부모의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데, 부모 세대의 소득, 자산 등 경제적 요인들이 조사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영향요인이 자녀의 경제적 상태에 집중되었다. 또한 조사 대상 자녀의 연령이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집단으로 정교한 분석 및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을 제한하거나 또는 범주화 후 연령집단별 비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조사대상자수의 한계로 인해 시도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 비교, 자녀 및 부모세대의 경제적 상태 세분화에 따른 비교 등을 시도해 분석을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자녀와 부모세대 간 경제적 지원과 수혜가 도구적 지원과 같이 이전되는 현상은 연구대상을 시간 자원과 정서적 지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대신 노인주거시설 및 부양시설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와 부모세대가 점유하는 공간적 거리와 공간 인지에 따라 지원 및 교환유형이 변화될 수 있다. 자녀 부모 간 공간적 거리와 지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고령사회에서 자녀세대와의 지원과 교환을 유지하는 관점을 고려한 부모세대를 위한 주거 및 부양시설에 대한 정책방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선강(2005). 미국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지원 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2)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지원 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 209-229.
- 3) 고선강(2012).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 이전의 호혜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03-121.
 - 4) 고선강(2014). 중년층의 소득계층별 세대 간 경제 자원 이전.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79-102.
 - 5) 김순미 · 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6) 김순미 · 박미려(2008). 중 · 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7) 김여진(2017). 성인자녀와 부모의 기능적 세대연대와 세대별 차이. 한국인구학, 40(2), 33-56.
 - 8) 김지경 · 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9) 김지경 · 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복지연구, 24(3), 77-98.
 - 10) 김지연(2006). 성인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 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1) 김혜경(2004). 3세대 가족의 세대간 보상-비용의 식, 가정생활만족도의 비교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4, 119-146.
 - 12) 박경순 · 박영란 · 염유식(2015). 성인자녀와의 사회적 지원교환이 농촌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8, 273-301.
 - 13) 박미려 · 박미석(2017). 세대 간 자원이전과 인적 자본이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노후생활준비와 현재행복수준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3), 157-178.
 - 14) 배희선 · 최현자(2002).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 대한가정학회지, 40(6), 99-115.
 - 15) 배희선(2008). 중 · 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증여와 상속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47-79.
 - 16) 손병돈(1999). 부모 부양의 동기와 재분배 효과: 가족 간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2), 59-78
 - 17) 이윤정 · 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18) 이재림(2013).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세대 간 지원 제공 및 수혜의 의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1-24.
 - 19) 정지영 · 양세정(2013).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 세대 간 자산이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99-219.
 - 20) 정진경 · 김고은(2012). 노년기 부모-성인자녀 간 지원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2(3), 895-912.
 - 21) 진재문(1999).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분석. 사회복지연구, 13(1), 167-199.
 - 22) 한지수 · 홍공숙(2007).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 여성자녀의 시장노동 참여 및 참여시간 결정요인: 기혼여성자녀와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6), 61-75.
 - 23) 허경옥 · 유수현(2014). 부모의 경제자원이전과 상속이 가계경제구조, 재무구조,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7(2), 95-120.
 - 24) 홍성희 · 박인숙(2014). 성인자녀와의 지원교환이 중년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69-91.
 - 25) 홍성희(2015).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1-26.
 - 26) Becker, 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27) Boaz, R, F., Hu, J.,& Ye, Y(1999). The transfers

- of resources from middle-aged children to functionally limited elderly parents. *The Gerontologist*, 39, 648-657.
- 28) Bengtson, V. L., & Roberts, E.(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56-870.
- 29) Bernheim, B. D., Shleifer, A., & Summers, L. H.(1985). The strategies bequest motiv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045-1076.
- 30) Cox, D.(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508-546.
- 31) Grundy, E., & Henretta, J. C.(2006).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A new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d by the 'sandwich generation'. *Ageing & Society*, 26, 707-722.
- 32) Henretta, J.C., Hill, M. S., Li, W., Soldo, B. J., & Wolf, D. A.(1997). Selection of children to provide care: The effect of earlier parental.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110-119.
- 33) Kim, K, Zarit, S. H., Fingerman, K, L, and Han, G.(2015). Intergenerational Exchange of Middle-Aged Adults with Their Parents and Parents-in-Law in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7(3), 791-805.
- 34) Koh, S., & MacDonald, M.(2006). Financial reciprocity and elder care: Interdependent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 420-436.
- 35) Lin, J. and Yi, C.(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ociology*, 28(3), 297-315.
- 36) McGarry, K., & Schoeni, R. F.(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 37) McGarry, K., & Schoeni, R. F.(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s from the asset net worth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38) Roberto, K. A., & Jarrott, S. E.(2008).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A Life span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57, 100-111.
- 39) Sabatelli, R. M., & Shehan, C. L.(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P. G. Boss et al,(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385-411, NY: Plenum Press.를 고선강(2012)에서 재인용
- 40) Silverstein, M., Conroy, S. J., Gans, D.(2012) Beyond Solidarity and Altruism: Moral Capital as a Unifying Concept in Intergenerational Support for Older People, *Aging and Society*, 21(7), 1246-1262.
- 41) Swartz, T. T.(2009).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 in Adulthood: Patterns, Varia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191-212.

- 투 고 일 : 2017년 12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01월 05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02월 14일